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피고인 ○○○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친구 ○○○입니다. 제가 알고 지낸 ○○○은 평소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앞에 나서기보다는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편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건, 특히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쉽게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며, 그가 이번 일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주었는지를 여러 번 되뇌며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평소 책임감 있게 살아오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수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피고인은 그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의 반성과 평소의 삶을 함께 살펴주시어 너그러운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25년 ○월 ○일

탄원인: ○○○ (서명 또는 인)

피고인과의 관계: ○○

연락처: ○○○-○○○○-○○○○